



공동성명서

누구를 위한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인가?



GCN 녹색소비자연대
National Council of the Green Consumers Network in Korea



(사) 한국YWCA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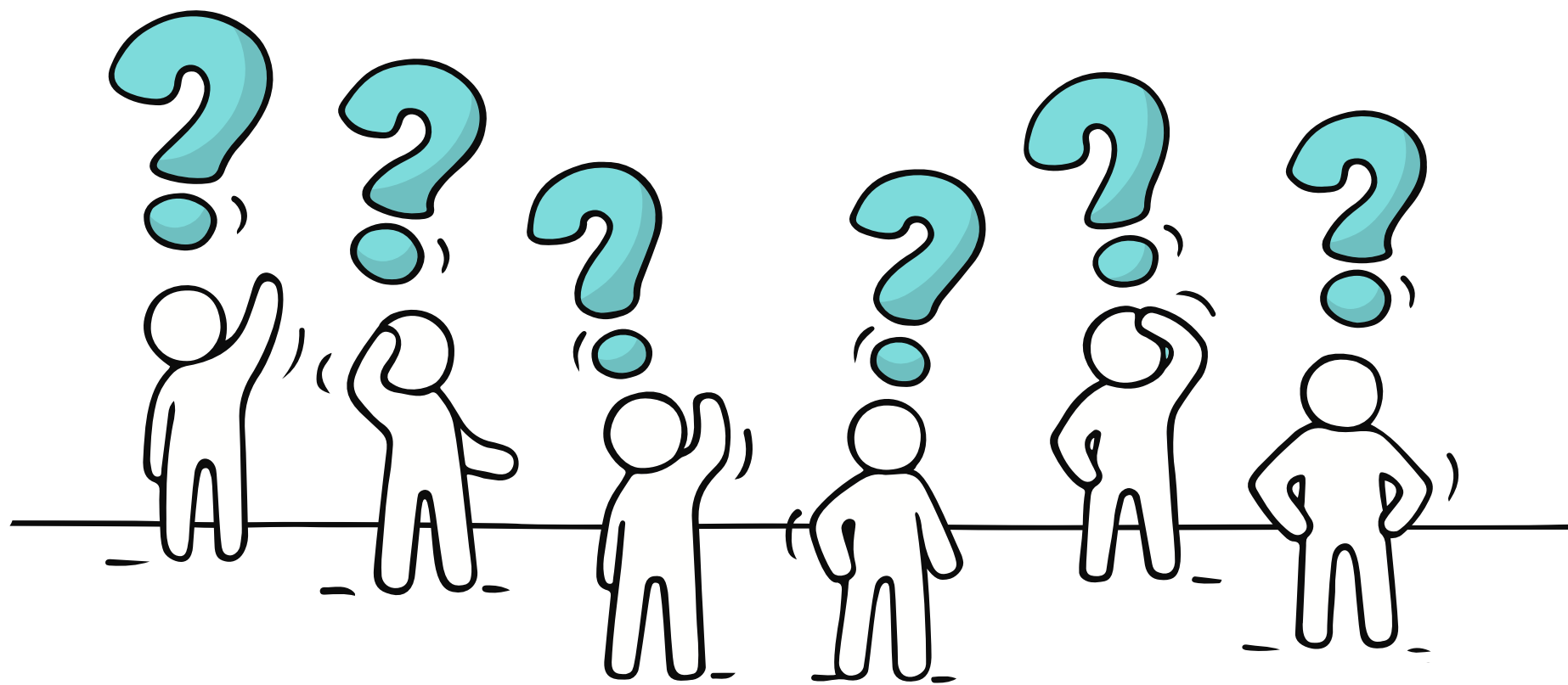
| 무한 규모 확장 경쟁의 돌입

+6,500

수도권 추가 예정 병상 수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앞다투어 병상을 늘리고 진료권을 확대하여
'몸집 키우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인가?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무리한 병상 및 진료권 확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수차례 공언했던 '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 및 '지역 필수 의료 강화' 기조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극심한 모순적 행보입니다.

의료 불균형의 근본 실태

치료망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적인 위기는 치료 인프라의 절대적 양적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사회 간의 극심한 의료 불균형과 편중 현상입니다.

환자가 겪는 차가운 현실

응급실 뱅뱅이,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대규모 원정 상경 등 지역 필수 의료망 붕괴야말로 시급히 정비해야 할 본질적 고통입니다.

| 병상 확대가 초래할 고통



국민 모두의 재정적 부담

새 병원은 단순히 사립 병원의 투자가 아닙니다.

병상이 가동되는 순간부터 공공의 자산인 건강보험 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되며, 이는 전 국민의 건보료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의료개혁



안심하는 일차의료

내 동네 근처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주치의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확충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소아, 응급, 분만 등 생명과 골든타임에 직결된 진료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종결되는 체계



단절 없는 돌봄 연계

퇴원 이후에도 방문 진료 및 간호,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우리의 5대 핵심 촉구 사항

1

수도권 대형병원은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멈추고 지역의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2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없는 수도권 병상 확대 계획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

3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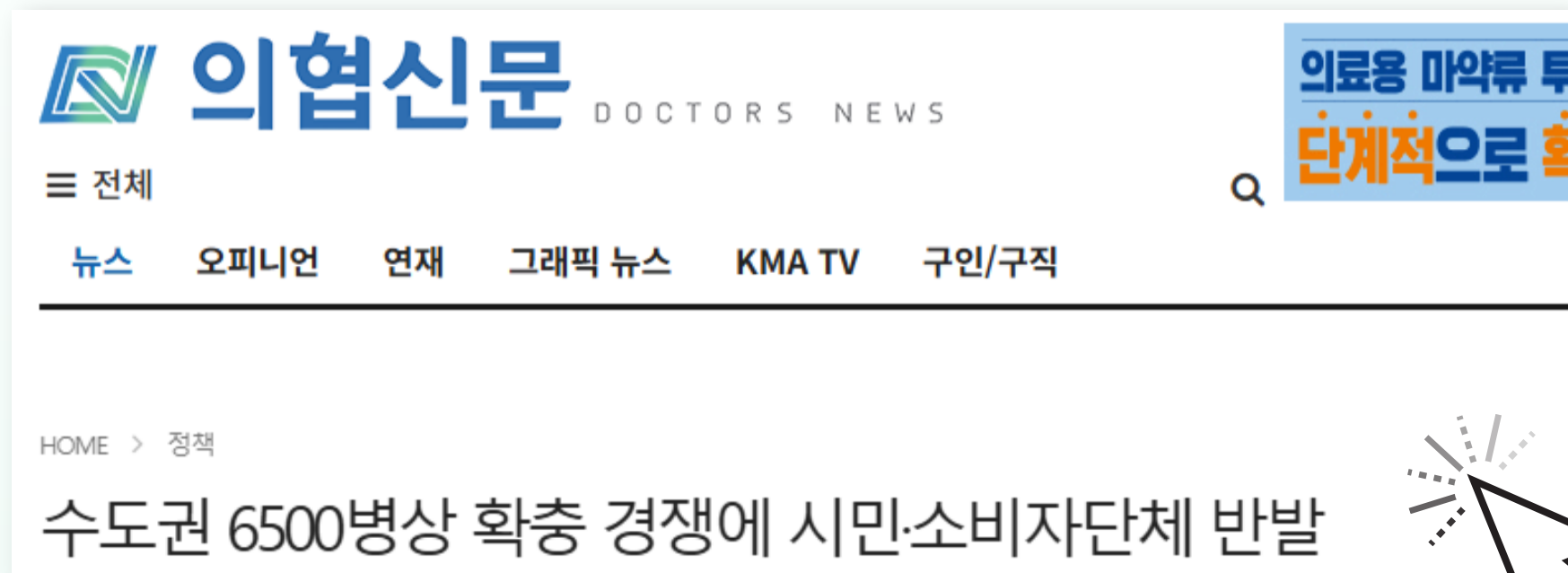
4

지자체는 선심성 '대형병원 유치'를 멈추고 '주민 건강권 보장'에 집중하라

5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과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를 마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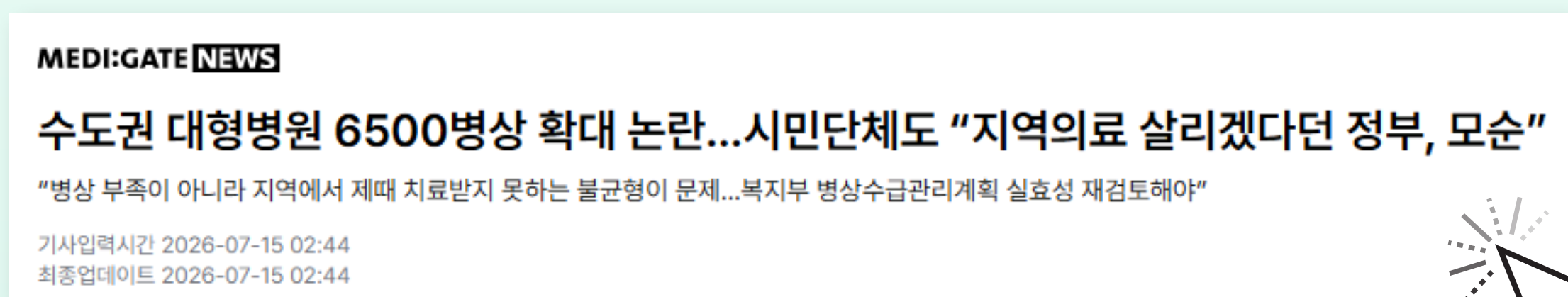
이 이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도자료 ①] 수도권 6500병상 확충 경쟁에 시민·소비자단체 반발
26.07.14 의협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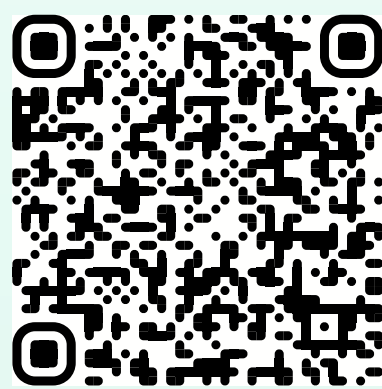
[보도자료 ②] "수도권 병상만 늘려선 의료개혁 못한다"...
시민단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촉구
26.07.14 한국NGO신문



[보도자료 ③] 수도권 대형병원 6500병상 확대 논란...
시민단체도 "지역의료 살리겠다던 정부, 모순"
26.07.15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는 병원의 크기를 확장해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지켜내는 사회적 공공재여야 합니다.”

GCN녹색소비자연대 · 한국YWCA연합회 · 의료공동행동



성명서 바로가기

